

국회의원은 국민이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투표하여 의석을 배분받는 전국구 의원으로 나뉜다.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진행된다.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내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1명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선거구 당 당선인을 1인으로 하여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이 안정되고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렵고 사표*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전국구 의원 선거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정당득표율은 선거에서 각 정당이 받은 유효 투표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첫 문단부터 정보량이 장난 아니게 쏟아집니다. 읽어보니 국회의원의 종류를 나누고 각 종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방식 사이에 비교지점이 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엇갈리는 방식이네요.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줘야겠습니 다. 화제는 ‘국회의원의 종류에 따른 선출방식’ 정도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교지점이 잡히는 정보들을 잘 구분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투표하여 의석을 배분받는 전국구 의원으로 나뉜다.

국회의원의 종류를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전자는 국민이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고 후자는 ‘정당’에 투표해서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네요. 투표 대상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진행된다.

후보에게 직접 투표해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인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라는 선거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과 소선거구제를 같은 범주로 묶어줍니다.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내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1명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역구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내’에서 다수의 유효표를 얻은 1명을 당선인으로 한 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선거 방식인가 봅니다. 투표해서 표 제일 많이 받은 1등만 뽑는 것이네요. 단 이 문장을 읽을 때 지역구 의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후보에게 직접 투표해서 선출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데,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내’에서 제일 표를 많이 받은 1명을 선출하는 거래요. 그럼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내에서 제일 표를 많이 받은 1명이겠습니 다. ‘지역구’라는 키워드 자체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같은 범주의 세트로 묶어주고 넘어가도 무방하지만, 역시나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한 번 지문 내에서 이해해볼 수 있는 선에서는 모두 이해해보는 게 좋겠죠?

이는 선거구 당 당선인을 1인으로 하여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이 안정되고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소선거구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과,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대요. 당연히 1명만 뽑히니까 인기 많은 몇 개의 정당에서 후보자가 선출될 테니, 군소 정당의 난립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후보자에 직접 투표한 결과로 선출되는 것이니, 당선자의 대표성도 높겠죠? 역시나 이 부분 또한 ‘선거구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점을 기억한 채 앞부분에서 제시된 정보를 끌고 오면서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렵고 사표*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언급합니다. 아까 장점으로 군소 정당의 난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꼽았는데, 그게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네요. 군소 정당의 난립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소수 정당의 진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군요. 그리고 사표도 많대요! 당선인을 다수표를 받은 1명만 선출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려지겠군요. 그래서 사표가 많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네요. 장점과 단점이 서로 내용적으로 연결되네요. 이 부분을 잘 캐치했다면 장단점 처리가 한결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냥 정보 정리만 해도 충분하지만 최대한 지문 내의 내용을 통해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전국구 의원 선거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이번에는 전국구 의원을 뽑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대요. 아까 전국구 의원의 정의가 뭐였죠?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전국구 의원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었으니 그런 전국구 의원을 뽑는 비례대표제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군요. 역시나 같은 범주로 묶어주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정당득표율은 선거에서 각 정당이 받은 유효 투표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네 당연히 '정당'/'득표율'이니까 '정당'이 받은 유효 '투표수'를 고려하겠네요.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제시해줍니다.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네요. 일단 이해해봅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했으니 정당이 핵심이겠네요. 그러니까 군소 정당의 난립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표는 줄어들겠네요. 내가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이 적더라도 적은 만큼이나 의석을 배분받긴 할 거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이 서로 반대됩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비례대표제의 단점이 되고,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 등장해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이 안정된다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동시에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나타나고, 사표가 많다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가 줄어든다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됩니다.

슬슬 느낌이 옵니다... 둘을 섞은 대안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전에서든 각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구조'로 전개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 서로의 장단점을 섞은 해결책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해주신다면 더 완벽하겠습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당선된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당선표보다 사표가 많아지는데(사표>당선표), 이를 대표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선출된 의원의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각국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였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구분하여 선출하는 제도로, 국민이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완전 비례대표제는 의회의 모든 의석수를 정당별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제도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의 문제점인 '대표의 역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완전 비례대표제가 그것인데 일단 애네도 결국은 비례대표제라는 생각을 갖고 읽어야합니다. 앞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죠? 그 내용을 끌고 내려오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소유 지문 해설에서도 언급했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독해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당선된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당선표보다 사표가 많아지는데(사표>당선표), 이를 대표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선출된 의원의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문장 한 번에 볼게요. 지역구 의원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결국 소선거구제의 한계이겠네요. 그게 대표의 역설이래요. 대표의 역설은 결국 '사표 > 당선표'의 결과로 인해 대표성이 약화되는 현상이네요.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대표성이 높은 것이었고 단점이 사표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단점으로 인해 장점만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맞네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역구 의원 선거 = 소선거구제'라는 점을 떠올리고 대표의 역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함께 떠올리셨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이에 각국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의 역설이라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인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한대요. 비례대표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네요. 아까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이 서로 교차된다는 점을 파악했다면 당연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였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구분하여 선출하는 제도로, 국민이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 중 하나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애는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따로 뽑아서 국민이 각각 한 표씩, 총 두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네요. 이 말은 지역구 의원도 따로 뽑아서 국민이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소선거구제를 함께 시행한다는 말이겠군요. 그래서 '병립형'인가봅니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시행하니까요.

이와 달리 완전 비례대표제는 의회의 모든 의석수를 정당별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번엔 완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애는 그냥 정당에만 투표한대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의 비교지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간단하죠?

완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득표율을 모든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여 사표가 최소화되고 선거 결과에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가 늘어나 군소정당의 난립이 심해지기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구분하여 선출한다. 이는 소선거구제 내에서는 당선자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국구 의원에 배정된 의석수가 적을 경우 다수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소수 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아 시행 목적과는 달리 거대 정당만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완전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마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비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소선거구제의 비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둘 다 결국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일단 한 문장씩 읽어볼까요.

완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득표율을 모든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여 사표가 최소화되고 선거 결과에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완전 비례대표제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표가 최소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대요. 당연히 사표가 줄어드니, 표를 행사한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표가 줄어든다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완전’ 비례대표제이니까 정말 비례대표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단점도 앞에서 제시된 비례대표제와 같은 맥락에서 제시 되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가 늘어나 군소정당의 난립이 심해지기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네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군소정당의 난립이 심해져서 정국이 불안정해진대요. 이것도 앞에서 제시된 비례대표제의 단점 그대로입니다. 단 주의해야할 것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라는 점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결국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다만 완전 비례대표제가 더하다일 뿐입니다.(아마 병립형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덜한 것이겠죠?) 애네 둘 다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구분하여 선출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까먹었다라도 이 문장을 보고 다시 떠올려 주셔야해요!

이는 소선거구제 내에서는 당선자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소선거구제 내에서는’ 당선자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합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대표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구분해서 둘 다 뽑는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가지고 오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애도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해요. 여기서도 ‘소선거구제 내에서는’이라고 한정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국구 의원에 배정된 의석수가 적을 경우 다수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소수 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아 시행 목적과는 달리 거대 정당만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단점을 보니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려워져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경우이네요. 이것도 아까 봤던 소선거구제의 단점과 비슷합니다. 마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일부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단점도 ‘전국구 의원에 배정된 의석수가 적을 경우’에 한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비례대표제로 배정된 의석수가 적을 경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로 결정된 의석수가 많을 경우에 소선거구제의 단점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데, 그 중에서 비례대표제로 얻은 의석수가 적고 소선거구제로 얻은 의석수가 많으면 단점도 당연히 소선거구제의 단점과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러한 상황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통해 총 의석수를 배분한 후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었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당선된 지역구 의원수가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에는 이를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된 의석을 초과의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총 의석수가 10석이며 5명의 지역구 대표를 선출한다고 하자. 갑국의 지역구 대표 선거 결과 당선자 비율이 X당은 80%, Y당은 20%이며 정당득표율은 X당이 20%, Y당은 80%라고 할 때, 정당득표율을 통해 배분한 의석수는 X당이 2석, Y당은 8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X당의 경우 지역구 4석, 비례대표 0석을 얻고 Y당의 경우 지역구 1석, 비례대표 7석을 얻는다. 이때 X당의 경우 원래 비례대표 의석수는 2석이었으나 지역구 의석수로 4석을 얻었기 때문에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선거에서 갑국의 총 의석수는 12석이 된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까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이 교차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 둘을 섞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

재단 생각을 해봤었죠? 여기서 등장하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초과의석이 또 제시되는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예시를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점유·소유의 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 예시처럼요. 그렇지만 초과의석의 정의를 토대로 하나씩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소선거구제와 혼합하기는 했지만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 안에 있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헷갈릴 수 있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두 선거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둘을 혼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의석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구요. 잘 구분해주셔야 해요.

이러한 상황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념의 특징을 설명해줍니다.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제래요. 문단 해설에서도 이야기했으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통해 총 의석수를 배분한 후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었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의를 제대로 제시해줍니다. 여기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도 있구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처럼 단순히 두 가지 선거 방식을 병행하는 게 아니라 정당득표율을 통해 먼저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을 통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메인입니다. 거기서 지역구 당선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는 게 무엇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돌아갑시다!

만약 당선된 지역구 의원수가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지역구 > 비례대표 의석수)에는 이를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된 의석을 초과의석이라 한다.

초과의석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의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지역구 의원수가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많아져 버리면 조정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이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지역구 의원 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의석수가 원래보다 많아지게 되는 게 초과의석이네요.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총 의석수가 10석이며 5명의 지역구 대표를 선출한다고 하자.

역시나 예시를 들어줍니다.(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초과의석에 대한 예시겠죠?) 처음 보면 정말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체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 예시를 잘 파악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씩 봅시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때 총 의석수가 10석인데 그중 5명의 지역구 대표를 선출한대요. 그럼 나머지는 전국구 의원을 5명 선출하는 것인가 봅시다. 반반씩 뽑는 것이네요.

갑국의 지역구 대표 선거 결과 당선자 비율이 X당은 80%, Y당은 20%이며 정당득표율은 X당이 20%, Y당은 80%라고 할 때, 정당득표율을 통해 배분한 의석수는 X당이 2석, Y당은 8석이다.

X당과 Y당 2개의 당이 있는데 이 중 지역구 대표 선거 결과는 8:2, 정당득표율은 2:8이래요. 그래서 정당득표율을 통해 배분한 의석수는 X당은 2석, Y당은 8석이라고 합니다. 정당득표율을 통해 총 의석수를 배분한 후 조정하는 것이니 일단 2석, 8석으로 먼저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X당의 경우 지역구 4석, 비례대표 0석을 얻고 Y당의 경우 지역구 1석, 비례대표 7석을 얻는다.

오잉? 원래대로라면 정당투표율에 따라서 X당은 2석, Y당은 8석이어야 할텐데 갑자기 X당은 지역구 4석에 비례대표가 0석이 되었고 Y당은 지역구가 1석, 비례대표가 7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지역구 결과에 따라서 정당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수를 조정한 것이겠죠? 일단 뒤에까지 읽어보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당의 경우 원래 비례대표 의석수는 2석이었으나 지역구 의석수로 4석을 얻었기 때문에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선거에서 갑국의 총 의석수는 12석이 된다.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였군요! 이 문장에서 약간의 설명을 보태줍니다. 이해할만한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X당은 원래 비례대표 의석이 2석이었습니다. 맞죠?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2:8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5석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그때 X당과 Y당의 비율이 8:2였습니다. 5석 중 80%이니까 4석이겠군요. X당은 여기서 4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당득표율에 따라 얻은 의석수는 얼마였나요? 네 2석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 정당투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수를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초과 의석이네요. 그런데 초과 의석을 다시 생각해보니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석수' 일 때 이 초과한 것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국은 결국 지역구 4석을 얻게 되고 비례대표(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수)는 0석이 된 것이네요.

Y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식에 따라 이런 식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초과의원석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인 거죠. 다시 볼 게요. Y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이 8석이었습니다. 전체 10석 중 80%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5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는 5명 중 20%, 그러니까 1명이 당선된 것이네요. 그래서 이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투표율에 따라 얻은 의석 즉,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석 중 지역구 의원 1명의 의석을 감안하여 지역구 1석, 비례대표제 7석으로 총 8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10석이어서 하는 것인데, X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원래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비례대표 의석인 2석보다 더 많은 4석을 얻게 되었네요. 그래서 2석이 더 많게 되어 총 의석수가 10석이 아니라 12석이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로 문장 안 나누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이야기해주네요. 역시나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소선거구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례대표제의 한계는 다들 아시겠죠? 동시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렵다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마저 해결해주네요. 거기에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도 완화한 대요. 둘 사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그런 것이겠습니 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준대네요. 소수 정당도 잘 진출하게 해주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도 해결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 ⑤

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의, 선거 방식의 정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네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이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내 유효 투표를 얻은 1명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었어요. 정당 투표를 통한 선거는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애는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였죠.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② 선거 방식에 따른 특징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완전 비례대표제의 장점이었죠? 그런데 당선된 의원의 대표성이 높은 건 소선거구제의 특징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다양한 비례대표제들의 특징을 잘 정리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었습니 다.

③ 마찬가지로 선거 방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원 선거,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지네요. 그런데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완전 비례대표제의 특징이었죠? ②번 선지와 같은 맥락의 근거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 선지였습니다.

④ 초과의원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추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항상 초과의원석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초과의원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초과의원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문의 예시에서도 초과의원석은 X당에서만 발생한 것이지, Y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초과의원석'이라는 잘못된 정보 정리를 했다면 틀릴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⑤ 마지막 문단에 등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장점)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어요. 지문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려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완화해주고,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니 그것과 결이 같은 완전 비례대표제의 한계도 해결해줍니다.

2. ③

- ①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은 완전 비례대표제입니다. 둘 다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바탕으로 비교지점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었죠? 그럼 선지 하나씩 살펴보러 가봅시다.

① 여러 가지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의원에 배정된 의석수가 적을 경우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겠죠? 또, ㉠은 지역구 의원을 함께 선출하는데, 이때 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완전 비례대표제인 ㉠에 비해 국민의 의사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론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 장점이 정당투표율을 모든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여 선거 결과가 국민의 의사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당투표율을 모든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의사 반영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비교지점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네요... ㉠이 정당투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니까 투표 결과(=정당득표율)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두 개가 비례하겠습니 다. ㉠은 지역구 의원도 함께 선출하니까 역시나 지역구 내에서는 사표라던지, 대표의 역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에 비해 투표 결과와 의석수가 덜 비례하겠습니 다.

③ ㉠은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모두 선발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총 두 표를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 정당에만 투표를 하니까 한 표만 행사합니다. 결국 ㉠의 제도를 시행할 때 1표를 더 많이 행사하게 됩니다. 답은 은근히 또 쉽게 나오네요.

④ 둘 다 비례대표제였습니다.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었죠? 지문 해설할 때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완전 비례대표제의 비교지점이 마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둘 다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어요! 둘 다 비례대표제라는 포인트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갈리는 선지였습니다.

⑤ 네 ㉠은 지역구 의원도 함께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선거 방식도 함께 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범위 내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1명을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범위는 ‘지역구 내’이겠죠? 맞는 말입니다.

3. ⑤

- <보기>의 상황 먼저 봅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의 선거 상황에 대한 내용이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조정 과정에서 초과의회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보기>에서는 총 의석수가 100석이고, 50석은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였고, 그 소선거구제는 ‘각 지역구’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1명’을 뽑는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5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총 50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등장한 초과의석의 예시와 비슷합니다. 총 의석수 중 절반을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같죠? .

- 표를 보니 정당은 총 A~D까지 4개가 있고, 각 당의 정당 득표율이 A~D 순서대로 50, 30, 15, 5(%)입니다. 일단은 이걸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받는 거예요. 그럼 A당은 50석, B당은 30석, C당은 15석, D당은 5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배분 받은 상태입니다. 애네들은 이따가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초과의석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도 봐야 하는데 B당만 25석으로 주고, A, C, D당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그럼 B당부터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B당은 우선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30석을 배분받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30석 중에 25석이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진 것이니, 나머지 5석은 전국구 의원으로 채워지겠습니다. 그럼 결국 지역구 의원 25명, 전국구 의원 5명으로 총 30석을 제대로 채웠네요. 초과의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 여기까지 알고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① A, C, D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의 합을 물어보네요. 그런데 <보기>에서 5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고 했으니 지역구 의원의 의석수가 총 50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B당의 결과가 25석인 것을 알 수 있으니 남은 애들은 50석에서 B당이 가져간 25석을 뺀 나머지를 지역구 당선자의 의석수로 가져가겠군요. 그럼 ㉠+㉡+㉢=25가 맞겠습니다.

② 초과의회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초과의회가 뭐였는지 다 기억하시죠? 지역구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수(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수) 일 때 그만큼 초과한 의석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기>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초과의회를 물어봅니다.

그럼 정당득표율이 가장 작은 D당에서 남은 25석의 지역구 당선자가 나온 상황을 살펴봐야겠네요. 초과의회 수를 살펴보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차이를 보아야 하는데 그 중 최대 초과의회를 보려면 이 차이가 가장 크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가장 적은 D당에 최대 지역구 당선자의 의석인 25석을 몰아주면 이를 알 수 있겠네요. <보기>를 분석할 때 D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5석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나온다면, 비례대표 의석인 5석보다 20석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다 초과의회가 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죠? 이 선지도 맞는 말이네요.

③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가 조정되는 내용에 대해 물어보네요. ②번 선지와 같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A당이 일단 정당득표율에 따라 50석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석수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조정되죠? 그렇다면 지역구 당선자 25명이 모두 A당에서 나온다면, 50석 중 25석이 A당의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지고, 남은 25석은 전국구 의원으로 채워지겠습니다. 그럼 지역구 의석수와 전국구 의석수가 같은 경우가 나타나네요! 이런 방식으로 다른 당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④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과의회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미 ②번 선지를 분석하면서 D당에 지역구 의석수 25석이 몰려서 초과의회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D당은 이미 20석의 초과의회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⑤ 과반의 의석이라고 함은 결국 50석보다 많은, 그러니까 최소 51석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일단 정당득표율에 따라 가장 많은 의석을 배분한 A당에서 초과의회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A당은 기본적으로 50석을 배분 받았고 여기서 과반이 되려면 초과의회가 발생한다는 말니까요! 그런데 A당에 지역구 당선자 25명이 모두 쏠리더라도 결국 50석이 최대라는 것을 이미 ③번 선지를 해결하면서 파악했었어요. 그럼 나머지 정당도 똑같겠습니다. B당은 이미 <보기> 상황을 살펴보면 초과의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보다 정당득표율이 작은 나머지 C, D당에 똑같이 25석의 지역구 당선자가 나와도 안되겠죠?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나올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네요!

4. ⑤

- <보기>는 지금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다가 양당제로 인한 문제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렵다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이걸 해결하려 하는 것이니 아마 비례대표제를 이용하겠죠? 그 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먼저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든, 비례대표제든 애네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대안이었으니까요. 그럼 선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선지를 보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이라고 말을 바꿔서 읽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만을 뽑는 것도 맞는 말이겠군요. 그런데 뒤에 보니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겠군'이라고 합니다. 일단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건 완전 비례대표제의 특징이었어요. 소선거구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대표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표의 역설이 사표 > 당선표일 때 당선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였죠? 그럼 대표의 역설로 인해 투표 결과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것이니 투표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②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때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고요. 영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2개의 정당만이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정당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 중 하나였던 소수 정당 진입의 어려움과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나머지 정당이 진입하기 어려우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는 사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선지를 거르는 방법도 있어요.

③ 완전 비례대표제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지역구 의원도 선출합니다! 개편을 어떤 선거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③번 선지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의석수는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례를 떠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⑤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아예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걸 결국 완전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럼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는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겠군요. 완전 비례대표제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였으니까요.

5. ③

- <보기>에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지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추가 정보가 됩니다. 이렇게 <보기>에서 추가 정보를 주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만약 등장한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받아 들여야겠죠?(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끈 밀어올리기' 문제처럼요) 일단 보니까 전국구 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 위성 정당을 흡수해서 의석수를 거대 정당이 먹어버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네요. 전국구 의원 선거는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받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자체를 늘려서 그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수를 골라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일단 위성 정당 문제는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대안은 정답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소선거구제를 잘 활용하거나 이 위성 정당 자체를 막는 방법이 정답이 되겠네요.

① 네.. 맞는 말인데 방안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전국구 선거에 참여하도록 강제한다고요? 전국구 선거는 결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었고 이걸 비례대표제에 해당하는데... 아까 <보기>를 보면서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대안은 정답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③ 심플 이즈 베스트인가요.. 위성 정당이 문제되니까 위성 정당을 막아버리자고 합니다! 약간 허무하게 정답이 나오네요.

④ 소선거구제를 활용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제시되었는걸요?

⑤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내용은 정답이 되기 어렵다고 했으니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비례대표에 할당하는 의석수가 줄어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절했어요. 그럼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0석이 될 수도 있는 거구요.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